

2017년 11월 21일, 대정읍 무릉2리 김충사 씨 댁, 이현경 조사.  
 김충사(남, 1942년생, 대정읍 무릉2리)

- 줄거리: 옛날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할아버지가 산에 땔감을 하러 갔다가 똥이 너무 마려워서 참다못해 개울에 일을 봤다. 똥은 개울물을 타고 빨래를 하던 할머니에게까지 내려간다. 할머니는 이것이 된장인 줄 알고 집으로 똥을 들고와 된장찌개를 끓였다. 할아버지가 산에서 돌아오자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밥상에 내놓았는데, 할아버지가 찌개를 맛보니 맛도 이상할 뿐더러 구린 냄새까지 났다. 할아버지는 여태 없었던 된장을 대체 어디서 구하였는지 할머니에게 물었고, 할머니가 자신이 싼 똥으로 된장찌개를 끓인 사실을 알고 기절초풍하였다.

**[제보자]** 이거 우스갯소리 헉나 허쿠다. 이거, 이거 이거 들으면 호끔 영 들이민 궂주만은 무신 똥이여 오줌이여 허는 것이 좋진 안 혀진 안 헙니까게. 경 허주만은 이거 이자 골으민. 재미잇이렌 허는 거난. 이거 훈번 들어 보쿠광?

**[조사자]** 예, 헤주십서. 좋수다.

**[제보자]** 옛날 옛날에 의좋은 하르방허곡 할망이 산골짜기에서 살고 있었어. 게, 헉루는 하르방은 뒷산에 올라가그네 뻘나무나 허곡. 뻘나물 허여사 그때는 밥 헹 먹을 거난 뻘남이나 허젠 고지에 간. 갓인디. 삭다리, 그디 삭다리 썩은 나무. 삭다리를 허영 션, 하영 션에

“이젠 오널은 뻘낭을 많이 허곡 집에 가야지.”

허연.

부지런히 삭다리 낭 허연 실러, 실러 오전 허리도 아프곡 허연 일어상, 일어산 운동이나 좀 허난 배가 슬슬 꿁꽁 아프는 거라. 이제 저 내창에서 낭 허여네 이젠 이제, 지게에 잔뜩 멘에 이젠 정 오젠 헨디. 아, 게 배가 일하니까 운동 이렇게 허멍 허니까 배가 꿁꽁 아프난 허연.

“아, 이거, 이거 가그네 똥이나, 똥이나 메려와 이젠 죽어지켜. 이거 어디 가그네 볼일을 빵 가삼직 허덴.”

헤여네 이제는. 그런 생각에 두리번두리번 거리다네 생각헌 게.

“에에 나무는 곁에 똥을 싸민 냄새가 낭. 추접헐 거 아니라게. 거난 개울에 가그네 싸민 누려가불민 깨끗헐 거난. 냄새도 아이 나곡 좋으켜.”

헤여네 경 헤네, 내창에 앗안 씨원허게 볼일을 보안, 삭다리를 혼 짐 잔뜩 지연.

“이제랑 집에 가사주.”

한편 할망은 어제 일 허여나난

“갈중이영 하근 거 세답덜을 가져강 내창에 강 빨아사주.”

허여네 이젠. 한편 할망은 경 허연 빨래를 부지런히 허연 고개를 들언 보난.  
강 저 쪽에서 뭔가 노랑게 둉실둥실 떠오는 게 아니. 할망은

“저게 무신 건고?”

허연 그것을 잡으려고 강물 쪽으로 들어강 보난

“아이고, 웬장이네 웬장. 어떤 집에서 웬장이 남양 돌아네 내창에 버렸인고게?  
아이고, 하필 우리집엔 요새 웬장이 떨어져네. 간장에만 출례 출령 먹단 보난.  
하르방 웬장찌개를 좋아하는 게. 하르방신디 웬장찌개나 끓여 줍사주.”

그렇게 생각해그네

“그, 웬장찌개 헤도렌 해도 못헤젖인게. 잘 됐저. 이 웬장 가정 강 두부 놓곡  
파영 하영 놔그네 보글보글보글 맛있게 찌개 끓영. 낭 해온 하르방신디 주민 맛  
좋게 먹을 거 아닌가? 빨리 강 끓영 줘야주.”

할망은 집이 들어왕 아인 게 아니라. 구수허게 웬장찌개를 두부로 허연 놓곡.  
하영 놓고 허연 맛을 보난 맛이 이상헌 거라. 애호박도 하영 놓곡. 풋고치도 송  
송 썰영 놔네 하영 놔빳자 맛이 이상헌 거라. 고개를 갸우뚱 허멍도

“내가 요새 입맛이 영 안 좋안 허엾인디. 입맛을 몰값인가?”

허연, 허연.

“하르방이 오민 하르방은 워낙 웬장찌개를 좋아하는 하르방이라. 맛보민 알테주  
게. 나사 무신 뭐 요새 입맛도 엊고 허멍 어떻사 헷인디 이 맛을 볼 줄 모르크라.”

허멍 이젠. 그때 하르방은 삭다리 행 훈짐 잔뜩 지여네 오멍

“할망, 배고판 죽어지크라. 즘심 출려줘.”

“알앗우다게. 하르방이 경 좋아하는 웬장찌개 보글보글 끓여낫이난. 응, 이제  
곧 출려 오쿠다. 경 헤영 먹읍서. 하르방이 경 먹고 싶던 웬장찌개를 끓연.”

“웬장은 어디션? 웬장 웃은 거 닮안게.”

거난

“이만저만이 헨 웬장에 그거 ㅋ를 커 앗안. 이만저만 그거 전부 그축헨 ㅋ져단  
또 끓엿우다.”

허멍

“먹어 봅서.”

헤연. 인칙에 골은 거 식으로 헨 건 맥엿어. 하르방은 배고픈 짐에 찌개를 떤  
에 입에 넣으니. 구수한 웬장 맛이 아니고 꾸리꾸리헌 냄새가 나는 게 아니가게.

“할망, 이거 이상헌 게. 웬장찌개가 아니고 무슨 똥냄새 ㅋ뜬 거 나는 거, 똥

냄새 나는 거 닳아. 할망 방귀뀌엿어?"

"아니우다게."

하르방이

"이 웬장 어디서 가져왓어. 거냔?"

할망이

"내창에서 떠내려오는 것을 놈이 내창에 버린 웬장인 줄 알양 끊엿수다게."

"아이고, 이 할망구야. 내가 그 내창에서 똥이 하도 마려와네 내창에 간 똥쌌  
인디, 그게 내 똥이라. 아이고, 이게 아이고게. 나가 하도 똥 매려완. 그 낭신디  
똥 싸민 닐 낭허레 또 와그네 보민 냄새날 거꼭 허나네. 내창에 가그네 그 싸민  
은 내려가 불민 깨끗헐 거냔. 경 헨 쌈 거주. 그거 내 똥이로구나게. 아이고, 이  
할망구 무신 그 치매 걸리곡 노망했야? 아이고."

경 헤네 거 곧단 보난. 우리 손지는 배설창지가 다 끊어지게 웃어. 경 혜연.

**[조사자]** 그런 얘기들 예전에 어르신네 어렸을 때도 막 많이 헤낫지예?

**[제보자]** 응. 들었고, 또 어린아이덜신디 이런 재미진 말을 골으민 귀가 베지그릉 헤그네  
입 아웃하고 경 들어. 경 허민 이거 진짠 줄 알게. 경 골으민 손지덜이 좋아하여  
그네 허난.

- 핵심어: 하르방(할아버지), 할망(할머니), 똥, 내창, 웬장(된장), 웬장찌개(된장찌개), 우스  
겟소리, 뗘낭(뗄감)